

“문학은 사회 질서 묻는 뼈뺀 언어”

목포 출신 황정산 시인 시집 발간 ‘거꾸집의 국적’ 사회 비판 등 담아 고 황현산 평론가와 형제 평론가 “평론보다 시 쓰는 일 더 어려워”

흔히 평만한 아우가 없다고 한다. 동생이 형을 능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형 못지않은 아우도 있고, 형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인정을 받는 동생도 있다.

문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학은 장르의 특성상 자신만의 창작세계를 열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누구 작품이 좋은가라는 측면보다 각자 개성적인 창작세계를 펼쳐나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목포 출신 황정산(사진) 평론가가 시집 ‘거꾸집의 국적’ (상상인)을 펴냈다.

시인으로도 활동 중인 그는 고(故) 황현산 평론가(고려대 불문과 명예교수)의 동생이다. “프랑스 문학 작품과 문학 이론에 해박한 지식”을 소유했던 황현산 동생이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형은 문학과 글쓰기에 평생을 바친 분이었어요. 항상 한밤에 일어나 새벽까지 글을 쓰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건강을 해친 게 아닌가 합니다. 형은 자신의 글의 미학과 논리를 아주 중요시하는 분이었고, 작품의 예술성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논리적 언어로 바꾸어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데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형의 모습은 글을 쓰는 데 있어 엄격했다. “이론을 남발하는 그런 글쓰기를 아주 싫어했다”는 말에서 보듯 황현산 평론가는 문학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숙고한 듯 했다.

이번에 시집을 펴낸 황정산 시인은 지난 1993년 ‘창작과비평’을 통해 평론을 써왔고 2002년부터는 ‘정신과 표현’에 시를 발표하며 시 창작도 했



다. 이번 시집은 20여 년 만에 묶어낸 것으로 오랜 기간 시적 여정이 갈무리돼 있다.

그는 “평론을 하다 늦은 나이에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어린 시절부터 시를 써왔다”며 “목포에서 학교 다녔던 중등학교 시절에는 시를 써서 많은 백일장 대회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다. 어느 날 문득 다시 시가 쓰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지금껏 평론을 써왔지만 “평론은 온전히 나의 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작품에 기대 쓰는 글이기 때문인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거꾸집의 국적’이라는 시집 제목이 암시하듯 시인은 다양한 시와 시적 존재들을 시집 형식의 ‘거꾸집’에 담아낸다. 황 시인은 주제와 경향에 따라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디스토피아로서의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하찮게 버려진 사물, 소외된 자들의 삶은 은유한 작품들이다. 또한 언어의 새로운 의미를 탐색하는 시도 있다.

이번 시집에 대해 시인인 김효은 평론가는 “시인이 던지는 질문들, 명령어들, 수수께끼 같은 시



편들에 독자들은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과 답변과 반박을 새롭게 내놓을 수 있다. 이 시집은 잠겨 있는 형식으로 열려 있다”고 평한다.

현재 ‘불교문제’, ‘상상인’ 주간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황 시인은 “모든 삶이 글 쓰고 책 만들고 하는 데 바쳐지고” 있을 만큼 문학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실 시와 평론은 전혀 다른 영역인데 그는 두 장르를 병행하고 있다. 논리적 이성적 사고, 감성적 사유가 엇갈리는 지점이다.

“평론을 쓰기 위해 많은 시를 읽을 때 시인들이 참 시를 못 쓴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만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막상 시를 써보니 제가 못 쓴 시라 생각한 작품들도 쓰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를 써서 새로운 말을 창조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문학은 ‘소수자의 언어’다. 법률 사전이나 도덕 교과서 같이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나 가치를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 질서가 바람직하기를 묻는 뼈뺀 언어”라고 언급한다. “사회적 주류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밀려났거나 억압받거나 스스로 몰려난 소수자만이 가능하다”는 말에서 그가 지향하는 문학의 가치가 가늠이 된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목포 출신답게 그는 목포 문학을 이야기했다. 앞으로는 고향인 목포의 문학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최근 목포 문학박람회나 김현축전 등을 통해 목포 문학의 융성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참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예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 소리, 가족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국립남도국악원 ‘악화민성’ 30일 대극장 진악당



국립남도국악원 공연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음악이 인간의 소리를 화평하게 만든다는 뜻의 ‘악화민성(樂和民聲)’, 우리 소리를 매개로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지막 상설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이 ‘악화민성’을 오는 30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펼친다. 국악원 상설공연 ‘국악의 향연’ 일환으로 노부영 예술감독이 지휘를 맡는다.

밀양아리랑과 진도아리랑을 주제로 백대웅이 작곡한 ‘남도아리랑’으로 막을 올린다. 지역색이 선명한 전라도와 경상도 아리랑의 선율을 엮어내 6박으로 진행되는 중반부 이후 활기찬 리듬이 돋보인다.

창과 관현악 ‘심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은 지선화가 소리할 예정이다. 창과 관현악 버전으로 구성해 ‘황성길 출발’이나 ‘방아타령’까지 장면을

판소리로만 들을 때보다 구성지다.

‘한일섭류 아쟁산조 협주곡’은 서울시 무형유산 아쟁산조 이수자이자 진도 출신의 김영길 명인이 들려준다. 아쟁의 저음과 어두운 음향, 허스키한 음색이 부각되면서 원초적인 슬픔이 발산되는 곡.

이외 진도 토속민요를 관현악으로 표현한 ‘오곡타령’, 사물놀이를 위한 합주곡 ‘신모듬’ 등이 울려 퍼진다. 국악원 기약단 단원인 한재석, 양태양 등이 선율을 더한다.

노부영 예술감독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 온 국립남도국악원에서 그동안의 피와 땀을 응축한 예술적 결과물을 선보인다”며 “따뜻한 우리 음악을 감상하며 다가오는 을사년을 힘차게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무료 공연, 국악원과 오산초, 회동 등 오가는 셔틀버스 제공. /최원민 기자 rubi@kwangju.co.kr



꿈마루 작은도서관서 진행중인 작품전시회 장면.

(꿈마루 작은도서관 제공)

선사와 고대시대는 어떻게 식량을 조달했을까

광주박물관 28·29일 학술대회...수렵·사육·유적 등 환경 변화 조명

선사시대와 고대시대 선조들은 어떻게 식량과 먹거리를 조달했을까.

수렵과 채집의 생활에서 사육, 재배로 이어지는 환경은 어떤 변화 양상을 거쳤는지 조명하는 두 개의 학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홍선)은 28일 호남고고학회와 공동 ‘선사·고대 한반도의 식량 생산’을, 29일 ‘광주 신창동 유적의 고환경’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학 조사 일환으로 광주박물관이 진행해 온 ‘호남지역 선사·고대문화 연구’ 사업 연장선에서 기획됐다.

먼저 ‘선사·고대 한반도의 식량 생산’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는 5명 전문가의 발표가 펼쳐진다.

‘선사·고대 호남지역의 수렵과 가축사육’ (배형근, 일본 교토대학)을 비롯해 ‘선사·역사시대 어로의 변화와 민족지’ (이상규, 가야문화연구원), ‘한반도 선사·고대 식물 식량 이용의 변화’ (이희경, 서울대학교), ‘벼 재배 방식의 전환과 사회적 의미’ (윤호필, 상주박물관) ‘한반도 소금(염전)의 이해’ (김건수, 국립목포대학교) 등 다섯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에는 좌장 이준경 교수(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토론이 예정돼 있다.

두 번째 학술대회 ‘광주 신창동 유적의 고환경’에서는 60여 년간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지형과 지질분석, 미화적 분석 등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신창동 유적을 조망하는 시간이다.

신창동 유적은 1963년 50여 기 용관 발굴로 호남의 대표 고대 유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광주 신창동 유적 일대의 지형 분석을 통한 고환경 복원’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학술대회 결과는 이후 전시, 학술총서 발간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며, 참가 희망자는 현장에서 등록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박물관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화·댄스...꿈마루 도서관 성과 발표회

수원동 신원마을 오늘까지

광산구 수원동 신원마을에 위치한 꿈마루 작은도서관(관장 정기열)은 2024년 작품전시회 및 성과발표회를 2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의미로 1년 동안 갈고 닦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캘리그라피를 통한 시화 작품도 전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1년간 지도하고 함께 기획했던 심명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순회사서(행정학 박사)의 도움이 컸다.

성과물 150여점 전시와 함께 시니어대표의 난타 공연과 어린이 댄스공연 등 이용자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심 박사는 “이번 전시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